

신태용호, 손흥민·기성용 등 명단 포함



대표팀 28명 발표...평가전 거쳐 23명 최종 결정 이승우 눈길...염기훈·김민재 부상 엔트리 제외

신태용 감독이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 명단을 밝혔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예상대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 장현수(FC도쿄) 등 대표팀 핵심 멤버들도 이번 없이 엔트리에 포함됐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김민재(전북 현대)와 염기훈(수원 삼성)은 결국 엔트리에 빠졌다. 오반석(제주 유나이티드), 문선민(인천)이 월드컵에 참가할 기회를 잡았다.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승우다.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는 6일 AC밀란을 상대로 이탈리아 프로무대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3일 우디네세전에 선발 출장에 풀타임 활약했다.

이승우는 청소년대표팀에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성인 대표팀 발탁

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는 23명이지만 신태용 감독은 부상 등 변수를 고려해 추가로 5명을 뽑았다.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도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청용 대표팀 발탁 여부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청용은 소속팀에서 경기 출장 기회가 적어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후반기 들어 대부분의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봤다. 이청용은 지난달 29일 레스서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종료 4분 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청용은 분명 장점이 많은 선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포메이션에 있어 상당히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6월1일까지 지켜보겠다. 지금은 러시아에 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태용 감독 /일/문/일/담/



“3전 전승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명단 발표 배경은.

"23명 외에 5명이 추가됐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5명이 됐다. 김민재와 염기훈은 35명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정도 후에 투입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소 8주에서 10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다. 김진수는 가벼운 조강을 소화할 수 있다. 국내 훈련까지 지켜보겠다. 구상하고 있는 월드컵 멤버가 조금 어긋났다. 오반석, 문선민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승우까지 28명을 뽑았다. 6월3일 출국할 때는 23인 체제로 갈 것이다"

좋아 맨투맨을 잘한다. 빌드업이 약해서 그동안 뽑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빌드업보다는 실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다."

▶이승우를 언제 뽑겠다고 생각했나.

"꾸준히 베로나에서 경기를 뛰면서 관찰했다. 스웨덴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이 선수를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을 분석하면서 생각했다."

▶국내 두 차례 평가전 목적은.

"팀에 중심이 될 선수들이 유럽과들은 어제 일정이 끝났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다음주까지 한다. 1년 간 힘든 여정을 달려왔기에 조금은 피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28명이 소집된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조합을 맞춰 평가전을 치를 것이다. 23명이 선발되면 그때부터는 조직력과 베스트 11을 형성하겠다. 국내 경기는 유럽과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승우는 첫 발탁인데.

"20세 월드컵 때 같이 생활했다.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 이 선수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이탈리아로 이적하면서 적응을 해야 한다고 봤다.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 첫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발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뽑았다. 이승우가 수비 뒷공간이나 파고 들어가는 민첩한 동작이 있다. 월드컵에 가면 문전에서 많은 반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 신체 조건이 좋거나 작은 선수가 민첩하게 움직이면 교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용 파트너는 누군가.

"주세종은 경찰청 입단 후 군사교육을 받아서 몸이 많이 다문됐다. 지금 많이 풀려왔다. 장단점을 알기에 체크하기 위해 28명 명단에 넣었다. 기성용이 못 뛰고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왜 꼭 기성용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성용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베스트 11이 누가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기성용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대표팀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파트너라는 것은 선수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권창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포메이션이 바뀔 수도 있고 권창훈이 미드필더로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여러 각도에서 포메이션을 돌려 최고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권창훈이 스트라이커로 골도 넣고 있지만 우리 팀에서는 어디서 잘할지 고민하겠다. 다재다능하기에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플랜A와 플랜B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텐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부상자가 나오면서 플랜 A와 플랜B가 바뀔 수도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몇달보던 3전 전패인데 왜 나가느냐는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우리 대표팀이 3전 전패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3전 전승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월드컵에 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귀국해서 국민들과 축구팬들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 대표팀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 내겠다. 먼 러시아까지 많이 오실 수는 없었지만 거리에서 응원해달라. 길거리 응원 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프라이즈, 모두 놀랐다”...약관의 이승우 월드컵대표팀 발탁

성인대표팀 첫 합류...지나해 U-20 월드컵 지도 경험

신태용 감독의 깜짝카드인 이승우(20·헬라스 베로나)였다.

신태용 축구대표팀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전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종엔트리 23명을 포함한 28명을 공개했다.

올해 약관인 이승우의 이름이 눈에 띈다. 아직 성인 국가대표 경험이 없는 이승우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다.

스페인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일찌감치 주목 받았지만 A매치 경험도 없는 어린 선수를 선발한 것은 파격이다.

이승우는 17세 이하(U-17) 국가대표팀에서 18경기에 출장해 13골, 20세 이하(U-20) 대표팀에서 16경기 출전해 7골을 기록했다. 개인기와 스피드가 좋고 골 결정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170cm의 작은 체격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신 감독은 "꾸준히 베로나에서 뛰는 것을 관찰했다. 조별리그에서 만난 스웨덴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이 선수(이승우)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북유럽의 다크호스 스웨덴은 180cm 중후반대 장신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190cm가 넘는 선수도 있다. 체공력 싸움에서 약점이 있지만 키가 큰만큼 스피드에 약점이 있다.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스웨덴 수비진의 뒤편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이승우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 감독에게 익숙한 선수라는 점도 발탁 배경이다. 신 감독은 "이승우와는 U20 월드컵 때 같이 생활했다. 장단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감독이 되고 이승우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당시는 바르셀로



나에서 베로나로 이적했기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출전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지만 최근에 첫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발탁 가능성이 있어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뒤편 파고드는 민첩한 동작이나 문전에서 많은 반칙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월드컵에 간다면 상대를 교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승우의 러시아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28명 중 5명은 탈락한다. 최종엔트리 23명만 다음달 3일 출국길에 오른다.

대표팀은 21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정현, 세계랭킹 20위...다시 아시안 톱랭커

랭킹 포인트 1807점 3주 만에 재진입...1위 라파엘 나달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22·한국체대)이 3주 만에 다시 세계 톱20에 재진입했다.

정현은 14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21위보다 한 계단 오른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ATP 투어 무어 마드리드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정현은 랭킹 포인트가 1817점에서 1807점으로 줄었다.

그러나 순위는 조금 올라갔다. 지난달 말 미국 취임비자를 받은 정현은 19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20위 벽을 넘어선 정현은 4월30일자 순위에서 22위로 내려갔다가 3주 만에 다시 톱20에 복귀했다.

지난주 20위 니시코리 게이(29·일본)가 24위로 떨어지면서 정현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로 되찾았다.

당초 정현은 이번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발 부상 탓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 4월22일자 세계랭킹에서 1위



를 라파엘 나달(32·스페인)에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으나 로저 페더러(37·스위스)는 7주 만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나달은 2위로 밀렸고 이날 막을 내린 마드리드오픈에서 정상에 선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가 3위를 유지했다. 4. 5위도 그리고리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 마린 칠리치(30·크로아티아)로 변화가 없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에서는 시모나 할렘(27·루마니아)이 세계랭킹 1위를 굳게 지켰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정수경(23·사랑도야병원)이 18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강정호, 매일 나아지고 있다 아직 실전단계는 아니지만...”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어호츠의 닷 헨팅턴 단장이 강정호(31)의 근황을 전했다.

헨팅턴 단장은 1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 피츠버그트러블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정호가 매일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리구에 하루 빨리 복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강정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긍정적인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비시즌인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여파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



을 통째로 쉬었다.

지난달 말 미국 취업비자를 받은 강정호는 곧바로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의 피츠버그 훈련장에 합류해 훈련을 하고 있다.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많은 평판을 받으며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확장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강정호는 재활 경기에 나서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헨팅턴 단장은 "아직 그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